문화광장

www.nesta.org.uk

홍 정 호
한국관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지회장

"우리는 세상을 영원히 바꾸는 대담한 아이디어를 현실로 가져옵니다."

이 문장은 영국의 혁신을 위한 조직 NESTA의 슬로건이다.

예술의 성장과 R&D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었다. R&D는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자로, 우리말로 '연구개발'이라 한다. OECD는 R&D를 '인간·문화·사회를 망라하는 지식의 축적 분을 늘리고 그것을 새롭게 응용함으로써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조적인 모든 활동'이라 정의하고 있다. 더 나은 제주인의 삶을 위한 모색에 예술의 역할을 찾고 있었으며 창작과 관련된 작곡과 문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 지속 가능한 지원의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싶었다.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tscouncil.org.uk)에서 많은 정보를 살펴보는 편이다. 그중에서 2012~2015년 사이에 진행한 예술 및 문화조직에 자금을 지원해 기술기업 및 연구자와 협력해 청중에게 도달하거나 수입을 창출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예술을 위한 디지털 R&D 기금' 사업을 살펴 보았다. 이후 '디지털 문화'라는 타이틀로 영국의 1200개 이상의 예술단체로부터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 작업을 지원하는 방법, 영향, 디지털 목표를 달성하는 필요한 장벽과 조언이 담긴 결과를 심도 있게 탐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디지털 포털을 통해 7년 동안의 성과와 지표를 살펴볼 수 있었다.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의 '예술을 위한 디지털 R&D 기금' 사업 협력이 바로 맨 처음 언급한 기관인 NESTA와 AHRC(예술 및 인문학 연구협의회)이다. NESTA는 이미 강력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다섯 가지 주요 영역 즉, 건강, 정부 혁신, 교육, 예술, 창조 경제 및 혁신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미래 작업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인공지능, 집단지능, 데이터 분석, 일과 기술의 미래 등 더 나은 삶을 위한 위대한 혁신가를 지원하고 있다. AHRC(예술 및 인문학연구협의회)는 영국의 번영과 경제를 위해 전통적인 예술과 인문학 연구 뿐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인공지능 등 현대적이며 미래적인 연구에도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창의적 강국으로서의 영국은 명성이 예술과 인문학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지식과 문화적 경험에 달려 있다고 이들은 믿고 있다. 미래 영국 경제의 중심에는 문화 산업과 갤러리, 박물관, 콘서트 홀 등 인프라가 있으며, 그 구심점은 예술과 인문학이라 믿고 있다. 이 기반으로 영국국민이 본질에 대한 심오한 통찰력과 다양한 커뮤니티와 시민사회에서 완전하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풍부하고 사려 깊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론은 이렇다. 제주인으로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술과 인문학의 접근성에 대한 근본적이며 지속 가능한 정책의 실현을 주장한다. 또한 미래 제주를 위한 혁신의 기반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사고와 실천이 필요한지, 누가 이끌어 가는지 알고 싶다.

사설

'제주형 통합복지' 전국 모델, 시기상조다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 사업이 전국모델로 될지 관심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공공부문 사회보장 정책을 통합한 정보시스템 구축 후 읍면동과 민간복지기관간 모든 정보 공유로 수요자중심, 현장중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3개 읍면동 시범사업중이며, 올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계속 확대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 '보이지 않는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책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최근 한 장애인센터 방문 자리에서 "시설 장애인들이 살고 싶은 곳에서 생활하며 안전·돌봄을 해결하고, 스스로 생활하도록 지원하는게 제주형 통합돌봄의 목표이자 지향점"이라며 "통합복지 사업을 전국 모델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3개 읍면동을 시범지로 지정한 지 넉달만에 '전국 모델'을 선언한 셈입니다.

현재 사회보장 종류만도 정부 제공 300여개, 지자체 추진 6000여개에 이른다 합니다. 결국 통합적인 복지체계 없이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아 기존 '신청방식'을 떠나 사각지대 계층을 찾아 혜택을 주도록 해야한다는 도의 지적은 타당합니다.

그렇다고 시범사업 넉달 만에 전국 모델로의 육성을 주장하는 저의는 이해 안됩니다. 해당사업이 민관 공동 정보시스템, 읍면동 별도 인력배치 등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라는 전국 첫 시도에도 불구하고 현실면에선 예상못한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당장 대상자 발굴 성과를 예상하지만 갑자기 늘어날 수혜자로 인한 관련 예산·인력 등의 확보와 개인정보 유출 등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내년말까지인 이 사업을 적어도 올 한해 시행 후 전국 모델을 선언해도 늦지 않습니다. 열매가 익기 전도 아닌, 맺기도 전에 따먹으려는 '심사'가 도지사의 대선행보와 관련없기를 바랍니다.

회복세 제주관광, 희비 극명해 안타깝다

제주관광에 모처럼 희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주관광이 직격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낭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격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벼랑 끝으로 내몰렸던 제주관광이 활기를 되찾았으면 합니다.

제주도관광협회와 관광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현재까지(8일 기준)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은 34만4863명입니다. 전년 동기(33만3675명) 대비 3.4%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제주에 온 내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수준을 웃돈 것은 5월초 황금연휴 기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처음입니다.

올해 연초만 해도 제주관광의 출발은 괜찮았습니다. 1월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 수는 110만443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8% 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2월에는 58만957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 줄었습니다. 3월(47만7176명)에는 54%, 4월(54만1099명) 53.3%로 반토막 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이어 5월(76만5616명)에는 34%, 6월(86만528명) 25.5%에서 지난달(98만4407명) 14.3%로 감소세가 눈에 띄게 호전됐습니다.

제주관광이 빠른 회복세를 보여 다행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좋아할 수만도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관광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개별관광을 선호하면서 단체관광을 상대하는 업계는 여전히 고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버스와 여행사 등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거의 휴업상태일 정도로 심각합니다. 제주관광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다른 지방에서 계속 유행하고 있는만큼 방역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열린마당

8월 주민세 알고 납부합시다

오 민 정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8월은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으로 제주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동지역 6600원 읍·면지역 5500원, 개인사업장 주민세는 5만5000원이며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균등분 주민세에 대해 자주 하는 두 가지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주민세를 안내하려고 한다.

첫째, 한 명의 납세자에게 주민세가 두 건 이상 부과되는 경우다. 이는 납세자가 세대주이면서 사업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사업소별 개인사업장 주민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중과세가 아니므로 고지서가 개인균등분인지 개인사업장인지, 개인사업장이라면 과세물건이 사업소인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2018년까지 주민세가 부과됐는데 주민세 부과가 되지 않은 경우다. 작년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세대원 범위가 구체화되면서 30세 미만 청년인 경우 미혼이며 부모가 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한다면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다른 변동 사항이 없다면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8월 균등분 주민세의 납부 기간은 8월 16일~31일까지로, 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3%)을 부담하게 된다.

은행 CD/ATM 수납, 읍면동 카드수납 외에도 ARS 납부(1899-0341), 자동이체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전자납부번호 및 인터넷 뱅킹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기한 내 자진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청와대·장차관 인사 형편 비슷' 평가

10일 인사에 제주출신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쇄신을 위해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개각까지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하마평에 제주출신은 전무.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 비서실 직속 정무·민정·소통·시민사회·인사 수석비서관을 둘러싸고 거론된 후임자에 제주출신은 없다는 것이 청와대·국회 관계자의 전언.

10일 청와대 인사가 일부 단행된 결과 제주 출신은 없었고, 앞으로 예상되는 청와대 인사와 장차관 인사에서도 형편은 비슷할 것이라는 평가. 부미현기자

"알 권리 위축 여건 변했다"

○…김원준 신임 제주지방경찰청장이 10일 기자간담에서 '피의사실 공표' 논란으로 위축된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 "사회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부득이한 부분"이라고 언급.

취재 현장에서 사건 발생 시 경찰이 사건 발생 여부나 내용을 숨기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숨기는 건 아니다"라며 "(기자와 경찰의) 기술적 부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

이어 "보도가 되면 범인 검거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고, 개인의 인권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한 것 같다"고 첨언. 강다혜기자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쇄도

○…서귀포보건소·제주대학교병원이 지역사회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범시민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에 참여 신청이 쇄도.

서귀포보건소가 서귀포지역 초등학교·중학교를 대상으로 '두근두근 생명지킴이 심폐소생술' 교육 신청을 접수한 결과 큰 호응 속에 모두 23개 학교·2750여명이 교육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높임과 동시에 생명지킴이로서의 능력도 키워 나갈 것"이라고 설명. 현영종기자

부 고

허형운(前 성산수고 교사) 어머니 **청주 정씨 우순(향년 99세)**께서 서기 2020년 8월 8일 23시 40분경에 노환으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 2020년 8월 12일(수요일)
▶발인일시 : 2020년 8월 13일(목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 부민장례식장 2빈소
▶장 지 : 모슬포 가족묘지

아 들 허형운 / 형진
며느리 강경열 / 양영란
딸 허옥순(故) / 옥연 / 매숙 / 명숙 / 금숙 / 임숙
사 위 이전강(故) / 송창식 / 강창우 / 김승호 / 이문현 / 박민식
손 자 허창룡 / 승복
손 녀 허순희 / 순실 / 수지
외손자 이광수 / 송상협 / 송상민 / 강수철 / 강민철 / 김동준 / 이철우 / 박제준
외손녀 이연희 / 이순희 / 이은희 / 송유경 / 강경라 / 김지영 / 이은지 / 박소연

※연락처
허형운 010-2611-1442 허형진 010-9840-4141
허옥연 010-4502-2881 허매숙 010-9686-0234
허명숙 010-8589-8073 허금숙 010-8661-5260
허임숙 010-3696-3628

부 고

이윤수(한국수산단체연합회장) 아버지 **재령이공 시환(훈장 · 향년 83세)**께서 서기 2020년 8월 9일 23시 59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 2020년 8월 11일(화요일)
▶발인일시 : 2020년 8월 12일(수요일) 오전 8시
▶발인장소 : 부민장례식장 3빈소
▶장 지 : 양지공원

아 들 이윤수 / 해수 / 영수
며느리 김경순 / 이명희 / 하삼옥
딸 이정희
사 위 박찬기

※연락처 : 이윤수 010-3693-1771
이해수 010-4691-3321
이영수 010-4177-7740
이정희 010-2251-17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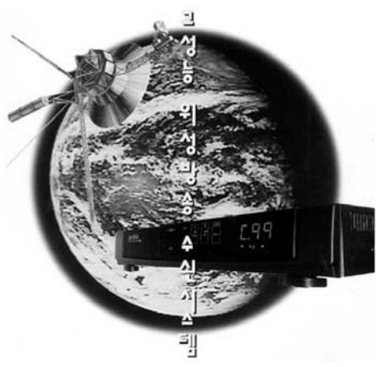
벌초
전문벌초 대행업체
직통 T. 010-3692-4898
사무실 713-4898

급매(운석)
• 감정가 : 20억원
• 매매가 : 2억원(절충)
※ 대물가능 ※
연락처
010-4855-6013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 표 :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